

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
애월읍 고내리 김영순, 장인숙 해녀 - 2

해녀: 김영순(1946생, 12살 때 물질 시작),

장인숙(1952년생, 1972년 결혼, 1974년 물질 시작)

인터뷰 일자 : 2019.

인터뷰 : 좌혜경(Q로 기록),

해녀 : 김영순(A로 기록), 장인숙(B로 기록)

Q : 무신거 망사리에 물은 가져갑니까?

B : 아무 것도 안 가져 갑니다

A : 물 안 가져 갑니다. 오래 안 듭니까, 물에

B : 막상 했자 한 두시간(2시간), 저 동쪽더레 판더렌 지금도 한 세시간(3시간) 네시간(4시간) 되영 뭐 망사리에 우유도 가져가고, 물도 가져 강 먹넨 허는디, 우린 그렇게 해본 적이 엇우다. 나가 물질 시작해도 영 보문 그냥 그대로 갔당 막상허문, 전에도 막상허문 혼 두 시간반정도 살아져신가. 경행 오곡, 요즘도 한시간반 두시간 많이 오래 살믄예. 건디, 아까 첨 영순이 계장님이 얘기 해주마는예. 깊이 들어가면 귀가 뭐 헌덴해도 저는예, 그런 거 전혀 못느껴마썸. 밑에 깊이 내려 갈수록 차분하게 그냥 찹찹하게 막 가라앉앙 편안행 좋읍니다게. 계난 물질을, 저 생각으로 '아 물질은 타고 났구나' 영 생각 드는디, 약간 그게 이상한 좀 튼튼한 기분이 느끼면 춤¹⁾ 한번 그냥, 아까 이 계장님은 코 영 허듯이 대부분 '훗' 다이빙 같은 분도 영 헌덴 허는디, 우린 춤 한번 똑 삼경 넘기면 그자 꿀꺽하면 그대로 올라오곡, 저 뭐허곡 해신디, 숨이 기니까 숨은 길어진 거 닳아마썸. 숨이 기니까 편안하게 내려갔당 올라와 지는 것 닳아예. 건디 지금은 숨보단도 힘에 버텨 못 내려감주. 그거보다 나이가 들어가니까

Q : 숨 하면은 한 이분(2분) 갈 건가?

B : 아, 나가 그렇게 살아, 살아진 거 닳아마썸. 그 젊은 때는

Q : 젊은 때는예

B : 밖의 물질

A : 젊은 땐 이분(2분) 더 살았주, 야이 이분(2분) 더 살았우다. 나가

B : 한 삼분(3분)정도예. 깜짝 놀랄 정도로예. 죽어신가 행보문 올라 올 정도로 헨 사니까 오래 살아진 거 닳아마썸. 근데 숨은 최고 길어수다게, 그때도. 이 즈레²⁾ 중에는. 경해신디 귀도 전혀 안 막고 그냥 그대로 다녀수다게.

Q : 완전 타고 나셨다

B : 예 예. 완전 타고 난 뭐로 헨 해신디, 경허당 이 계장님 말마따나 이상허다 싶으면, 한번 그냥 춤 한번 꿀꺽 한번 삼키면, 그게 그냥 편안해집디다게, 깊이 내려갈수록. 예 차분하게 그냥 내려 강 올라오곡 경해신디, 지금은 숨보단 힘이 버칩디다, 힘이.

Q : 그러면은 장인숙 회장님은 경력이 어떻 됴수과. 몇 살 때부터 이거 한 거죠?

B : 아, 어머니가 물질허단 돌아가셔수다게. 저 낳고 칠개월(7개월)만에, 저 애월 화물 그 저기 뒤에 그 찻집에 저 신문에 나온 거 허고, 이어도 행사 때 저 광장에 가서 첨 녹화허

1) 춤 : 침

2) 즈레 : 해녀. = 즈녀

고 신문에 난 거 붙여잇우다마는에 돌아가시난 일절 할머니 손에서 자라명 물질을 못허게 험디다게. 물질을 일절 못허게 허난, 외할머니 따라 그자 눈에 가면 눈 엉덕에 요 요 만헌 물 잇우게. 그런디서 그냥 개구리헤엄 7치 거기서 그냥 개구리도 히곡, 나도 히곡, 그런디서 히멍 뭐 히멍 놀당보은, 해가 정 “가자” 허문 같이 따라오곡 행, 거기서 수영은 배와진 거 닳아예. 경해신디 첨 할머니 밭에 가불언 없고 뭐 허니까 열두살(12살), 열한살(11살) 때 옆집이 인옥이 어멍네영 7치, 나도 물질은 힐 줄은 알아지는다, 물에 한번 가봐시은 가봐시은 행 그때 한번 미역 간 해완 할머니한테 크게 혼나난 후론 일절 안해신디, 딱 결혼한 살젠허난예. 농사백이 힐 게 없는 거라예. 경헌 서귀포 한 거의 일년(1년)쯤 살안, 칠십삼년도(73년도)에 여기 완 칠십사년도(74년도) 봄부터 한 삼월달(3월달) 사월달(4월달) 그때부터 나가 좀 시작한 해진 거 닳수다. 경허난 그때부터 시작허난예. 첨 돌 밑에고, 우에고 전복허면 혼³⁾ 숨에 몇 개씩 허여오고, 그자 엄청 첨 허여와집디다게. 경허난 그때 당시만 해도 첨 라디오 인터뷰도 간 허고, 저 ‘여섯시(6시) 내고향’ 이금히 그 저기 사회 볼 때 ‘여섯시(6시) 내고향’ 소라 홍보도 갔다 오고, 첨 많이 커집디다게. 경허명 헌게 그 때부터 물질 시작헌게 죽, 물질허멍 보통 해녀들은 물질허멍예. 첨 노래 그대로 삼시 굶영 물질 허영. 첨 애기덜 키우듯이 경 헌 애기덜 키우고, 밭 사고, 이만큼 편안허게 살아가는 거라예. 나 남편도 물론 벌기야 벌었주만은 첨 대부분 이 제주도 해녀허면 해녀들이 물질허연 번 돈들이 많주게마썸게.

Q : 언니, **강태공(???)**이여

A : 예. 최고마썸게. 물질허는 것도 나가 알기론 야이가 결혼허연. 혼 주로 물질은 했우다마는 결혼허기 전이 나영 물질 7치 갈 때도 결혼허기 전에 갔우다.

B : 예, 그때 그때 첨 같이 간

Q : 언니는 결혼을 몇 년도에 헌 거마썸?

B : 칠십, 칠십이년(1972년) 삼월(3월), 삼월(3월)덜에 결혼해수다.

Q : 그럼 칠십년도(70년도)부터 막 해신게.

B : 아니. 물질은 그때 몇 년도 갔다 와신고. 처녀 때 한번

Q : 으, 갔다 오고

B : 이 계장님 따라 경북지방 7치. 저 우미허고 전복 잡으는 디

A : 육십오년도(65년도)에, 육십오년도(65년도), 육육년도(66년도)에 갔다 와실거라.

B : 그때 한번 갔다 완 그 후론 물질 안 헌 그자 서울 간

A : 육십사년(65년), 육십사년(64년) 나 물질 생활 힐 때니까

B : 직장생활 허단

Q : 김영순 계장님은 그 물질 경력이 어떻 됩수과?

A : 게메. 우리 어머니네예. 풀이엔⁴⁾ 허영 잘 학교도 잘 안 시켜주고, 어디 누구보고 학교 시켜주렌 어디 줬단 또 돌아오고 허멍예. 그때 허단 보니까

Q : 초등학교

A : 예. 안시켜쥬. 그 땐 소학교. 경허단 보난예. 아무것도 첨 학교도 안 허고 허연 그냥 물질로만 들어가집디다게. 경헌디 열두술(12살) 때부터 우리 어머니 그냥 꼬맹이 허는 록세기⁵⁾ 허연. 허여주난 물에 듬시작 헌 건 열두술(12살) 때부터 그자 계속 들어진 거 닳아

3) 혼 : 한, 1. 예) 혼 숨 : 한 숨,

4) 풀이엔 : 딸이라고

5) 록세기 : 록박.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고 만든 자그마한 바가지

예. 계난 배운 것도 부족하고 그자 그런디만 허여지고 헌디, 훈 열여섯살(16살)에 방직에 들젠 또 육지 가난, 우리 어머니 그 메역 조물양 재개 풀아사⁶⁾ 무신 빛도 물고 어떻허고 헌덴 허연 불러들여부난, 방직에 들젠 갔단 또 열여섯(16살)에, 열여섯(16살)엔 농한티 안 떨어질 정도로 물질 허엿우다. 그때부터 고치 어멍네영 짚은 디 다니곡.

Q : 열여섯살부터

A : 예. 경허난 물질은 열여섯(16살)에 헐 때는 우리 어머니가 소라 허난, “느 헌걸랑 느대로 풀라” 경허난 그때 첫 소라 허여 온 게 스원(4원)에 풀안맘썸.

Q : 아이고

A : 훈근에 스원(4원). 계난 나 다, 나예 세살(3살) 때부터 큰 건양 다 기억해마썸. 우리 어머니도 깜짝 놀랍니다. “아니고 나 생각, 느 그거 생각 남시냐” 영 허여. 우리 어머니 나 업영⁷⁾ 곱으레⁸⁾ 가난 거 다 알아집니다게.

Q : 사삼(4.3) 때

A : 예. “어머니, 나 업언에 할머니네 집 뒤우로 그 거멍 헌 소곱⁹⁾에 들어간게 무사 들어간?” 허난에 사삼(4.3) 때 몸눌 속으로 들어 간거렌예. 계난 나 막 어머니 캄캄헌디 들어왔젠 허멍 눈뎡이 탁탁 두드리난 우리 어머니가 나 궁둥일 독독 두드럽다게. 경허멍 허영 이제 온 거영양, 또 그당시에 잡이서 우리 언니덜이영 허영 허는 거영 막 허난, 우리 어머니 “야, 느 그때 거 몬 생각남시냐?” 허난 “어머니, 생각나” 경 허연

Q : 지금 계장님은 그 식구 중에 딸 중에 몇번째

A : 아, 우리 어머니가예. 팔자가 좀 굿단¹⁰⁾ 보난예. 시집 간에 딸 형제 난. 저기 딸 형제 나 명 그 남편이 돌아가버리니까, 우리 어머니 스물다섯(25)에 돌아갔젠 험디다게. 겐, 우리 또 언니 하나, 그 언니 둘 데련 고내에 완, 한 서른(30) 몇살 서른한살(31세)에 우리 아버지 만난게, 나 하나 낳거니, 사삼(4.3)으로 또 우리 아버지도 저, 본 고향이 저지우다. 저지. 저지서 사삼(4.3) 때에 이제 그 어덜로 고산으로 내려 가멍 우리 아버지 또 돌아가불 언마썸게. 돌아가부난 이젠 나 하난 그게 세 살 때렌 허는 거라양. 돌아가 버리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나 혼자예 그 언니 둘(2)에 키운 겁주게. 계난 사삼(4.3) 때도 우리 큰언닌 보따리 등에 지고, 우리 그 작은 언니는 이제 신엄에 살암수다마는 그 언닌 걸리고, 나 업고 허연 막 곱으레 경 돌아다닙디다게. 경허멍 허연 크단 보난 이젠 또 혼자 이젠 잇이 난 하도 뉘허난 우리 어머니 또 개가허연 아들형제 나니까

Q : 아, 그렇게 형제 둘 나난

A : 형제 나난, 형제간이, 경허단 보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는 세 번째가 된 겁주게. 우리 아버지쪽으론 나까지 허믈 딸만 일곱(7)이우다. 우리 아버지

Q : 그러면 언니는 여기 고내에서 태어나고

A : 예. 고내에서 그냥 정착허게 되고

Q : 여기서

A : 고내에서 신엄으로 시집간예.

Q : 신엄?

A : 예. 시집은 신엄

6) 풀아사 : 팔아야

7) 업영 : 업어서

8) 곱으레 : 숨으러 => 곱다 : 숨다. 눈에 띄지 않게 몸을 감추다.

9) 소곱 : 속, 안

10) 굿단 : 좋지 않아 => 굿다 : 좋지 않다. 언짢고 거칠다

Q : 건데 고내 완 사시는 거 아니, 지금?

A : 예. 어머니, 나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, 이 바다 내용도 고내가 더 잘 알아지고, 신업에 간 한번 바다에 가보니까 먹돌¹¹⁾이고, 또 나가 익숙하지 안 허니까, 아무래도 고내에서 익숙하난. 그 당시엔 물질만 해야 사니까, 계난 고내로 완 집 빌언 오게 됩디다게.

Q : 남편분이랑 다테, 식구들도?

A : 예?

B : 식구덜 다

Q : 남편분은 또 농사지은 거 아니, 예?

A : 예. 같이 농사쳐도 우리 아저씨는 양, 신업에서는 그 결혼해가지고 일년(1년) 못 허게 살 앓우다게. 산디¹²⁾ 우리 아저썬, 신업에선에 밭에도 가고, 일도 잘 허고, 뭐 '지들케'엔 협주게. 불 때는 나무 해오는 거 보고. 지들케도 강 해여 오고 헨게, 고내 오난예. 그 남자덜이 일허는 사람이 얼마 엇어수다, 그 땐. 노는 사람이 많단 보난, 고내 오난 일을 덜 험디다게, 고내 오난. 고내 오난, 계난 나도 고내로 데려 와부니까 또

Q : 언니가 죽장

A : 투닥도 못 허고, 남들 눈이 있기 때문에 신업서 고내로 완 살기 때문에

Q : 가장질¹³⁾ 했구나

A : 허단 보난 혼자

B : 언니가 잘해부난, 일을 잘해부난

A : 혼자 잘 힘을 써집디다게. 혼자 해집디다게

B : 돌도 잘 담고

Q : 잘

B : 밭도 잘 갈고

A : 아니, 우리 아저썬

B : 잘 해부난. 히히히히

A : 우리 아저썬 돌 다우민예. 답당 보민 헤끌아져¹⁴⁾불어마썬게. 호끔 다와가믄 헤끌아와져불 영. 돌 요만이 다와가믄 "올러 튀어남수다" 허믄 존소리 험젠 허곡 헌디, 고만히 내불믄 돌 다완 거 헤끌아져릅니다.

B : 이제 밧디영 강 보믄 돌 문화공원 저레 가라로 담 잇우다. 잣담 답듯이¹⁵⁾

Q : 아이그, 어디 그거 한번 그 돌 허는 디 촬영 와야 돼켜

B : 거 무꿀 밧 ㄱ르치믄 되주게. 희안허게 담 허여난 잇우다, 밧디.

A : 경허난예. 우리, 우리 톨도 나 본따라 헨 사가 어디 밭을 사나수다. 팔았주마는. 거 어염¹⁶⁾에 돌을 썬 썬이라예. 자갈을. 밧디 자갈이 많으니까 썬, "햐, 저 밧디, 저 밭 임제가 틀린 밭 임제"엔. 저 돌 구석에 돌도 잘도 돌멩이도 잘도 이쁘게 싸고, 파도 저 약해부난 노랑 해가는 걸, 파도 틀린 파 싱겼젠허멍 막 영 자랑허연

B : 존존헌 돌도 어떻허연 올려놔신디양, 기가 막히게 썬 올려 놔수다. 굴렁밭은 우리 밭이주마는, "우리 밧디레 엇어집니다양, 헤클아집니다" "걱정말라. 나 헤클아지지 안 허게 잘

11) 먹돌 : 검은면도 결이 곱고 매끈하고 단단하면서 무거운 돌
 12) 산디 : 살았는데
 13) 가장질 : 집의 가장 역할
 14) 헤끌아져 : 무너져
 15) 답듯이 : 쌓듯이 => 답다 : 담장 따위를 돌로 쌓다.
 16) 어염 :

다켜” 침 탐?치 싸놔수다. 밧디 돌 하나 엇이 요만한 돌도 다 좃엉 그 탐 다 돌을 다
다마씩

Q : 잣담으로 다 헨거봐, 아니든 그냥 일반으로

A : 아니, 밧담으로게

B : 밧담으로

Q : 밧담으로?

B : 예

A : 밧담으로 요 넓이로 그 족은 돌이니까, 헨 도리¹⁷⁾론 이만큼 못 올라갑니께. 게난

Q : 두도리로이.

A : 예. 큰 거는 밑으로 놓고

Q : 겹담으로 해가지고

A : 게난 양 옆으로게, 갓당 노명 조근조근 낱 올라가든 크칭¹⁸⁾게 올라가는 겹주게.

B : 경헨 잘해부난 신랑이 뭐 험니까게

Q : 게메, 뭐 신랑 험 거 엇우다.

B : 밧도 같고게, 밧도 같고 다 잘해부난 ‘아이고, 나는 놀아리로 해도 저 사름이 다 험건디
경헨

A : 으흐흐흐

Q : 언니는 띠가 뭐디 그추록 잘, 부지런히 경 해져수과?

B : 개띠게, 개띠

A : 개띠난 부지런히 해지는 거 닻수다

B : 안 설룬 개띠, 개띠데 으흐흐흐. 엄청, 엄청, 억척스럽게 잘 험수다.

Q : 자식들은?

A : 자식은, 낱긴 삼남매(3남매) 나수다게. 삼남매 나수다마는 남매나 다름엇이, 하난 어디 일
본에 간 호꿈

B : 일본 간 정착헨 살아부난마씩

A : 예. 정착헨 나영 호꿈 나영 못

Q : 아들 딸 있구나이

A : 못 만났당 허난 아들 딸만 여기 잇우다

B : 삼남매우다게, 아덜

Q : 딸 잇이민 좋지 안해마씩. 딸도 부지런험니까?

A : 예

B : 딸이 어멍 못지 안허게 또 부지런험니다. 어멍 못지 안허게

A : 우리 딸도

Q : 해녀는 아니고?

A : 예?

Q : 해녀는 아니고?

A : 아이고, 해녀도 허든 악바리로 잘 험 아이우다게

17) 도리 : 겹 쌓는 돌레의 단위. 노적가리 다위를 쌓을 때.차곡차곡 둥그렇게 빙 돌아 한 바퀴 돌아 쌓
았을 때를 일컫는 말

18) 크칭 : 길이를 가지려히 자르거나 늘어놓은 꼴 => 크짱하다 : 크거나 길이가 같은 것들이 가지런하
고 고르다

B : 경헌디 어떻 해녀는 안 행양
A : 안 허켄 헨. 안 허켄
B : 뭐 해신디 어멍 못지 안허게 가이도 잘 험니다. 아이고, 농사짓는 것도 억척스럽게 허곡 양, 콩밭디 콩을 헨 거 보민 콩양 기가 막히게 험니다.
Q : 아, 농사 험구나이?
B : 예, 어멍을 능가허주게 톨도양. 그 어멍에 그 톨이우다게.
Q : 그 김영순 계장님 뭐, 무속신앙 당 같은데 다닙니까?
A : 당은 안 다닙니다마는
Q : 절?
A : 예 절간, 불교 믿엄수다. 우린 태고종. 예 태고종 불교 믿엄수다. 야이영 7치 곶은, 종교
Q : 같이. 두분이 정말 땀레야 땀 수 없는 그런 사이인생이우다예
A : 예, 예.
Q : 어떻 헨 그런 인연이 되수과?
B : 나도 첨 어머니 돌아가시고게, 아버지 또 재혼허고 해부니까, 할머니랑 살다 보니까 같은 처지가 된 거라예. 언니도 첨 어머니 재혼 헨 남편 돌아가시난 재혼 행 다녕 뭐 허듯이 그런 처지가 되난, 우린 원랜 저 도로변 곁에 살아나수다게. 거기 살 때부터 그저 나도 우에 언니도 엇고, 작은 엄마의 동생덜 잇어도, 누게 엇고 허난 언니처럼 의지헨 뭐허단 보난, 어린 때 한번 물질도 언니 보름¹⁹⁾에 같이 따라간 한번 갔다오고, 또 살다보니까 또 여기 취락구조 생견, 여기 마을이 정착되어 내려오게 되난, 또 오히려, 이 언니 요 옆이 이층집이우다마는예. 거기 가까운디 잇고 허니까, 그자 언니 동생처럼
Q : 아, 잘도 대단허시우다게
B : 예, 친 형제간 처럼 영
Q : 친분이예
B : 예. 지냄수다게
Q : 모래 갈 때도 이제 두분은
B : 예. 같이 감
Q : 어떻허든 두분이 리더격인 모양이우다예
B : 예. 같이 가곡, 같이 오곡, 나 이젠 차 헨 다념주마는 그 전에 차 안 헨 땀 오도바 탕 강, 난 오래 살아불믄, 먼저 오믄 또 나 태우레 오도바 탕 태우레도 오곡
Q : 언니 역할도
B : 예 예
Q : 잘하시고, 야 대단 하시다
B : 경허난 이제 것도 좀 뭐허연 차로 저기 저 트럭을 한번 배완 트럭을 탕 다녀야 되겠다 허 연, 이젠 트럭을 탕 다념수다마는양. 전엔 첨 태우레도 오곡 경해나수다게. 갈 땀 7치, 갈 땀 탕 가주마는 올 때는 먼저 난 사름은 먼저 와불고, 또 오래 산 사름은 오래 살곡 해불믄
Q : 어디 뭐, 해녀 행사 헨 때도 같이들 이제 다 모성 다니고 경
B : 예 예. 같이 가곡. 영 저 좋은 뭐라도 왔덴 허믄 구경도 7치 가곡
Q : 같이 가고

19) 보름 : 꿈무니

B : 큰 의지가 됩시다게
Q : 서로 잘도 보기 좋수다
B : 예 예
Q : 전엔 여기 불턱도 있어수과, 여기 이 고내 바당에?
A : 예. 불턱 많이 있어수다
Q : 많이 있었. 지금은 다 없어졌지예
A : 지금은 었어졌주마는예. 우리 그
B : 남뜰이
A : 나 결혼허기 전이우다게. 결혼허기 전에, 그 이제 저 서쪽에 가시리메렌 헐디, 그 막 우
에서덜 요만씩 헐 돌 다왕덜 불 추곡 허단 그 불턱을 만들게 되니까, 돌덜 막 지어단 올
리멍 잣으로 영허연 썬 불턱 하나 있고예. 또 이제 남뜰이는 또 저거 우리 불턱허연 허니
까 생이건설 들어오멍 그 돌을 다 파헤천, 그 우리 불턱꼬장 다 파헤천, 그 바다로 조금
길 나오게 되니까 불턱을 생이건설에서가 돌 다완 만들어 준 불턱이 싯고
Q : 요쪽 서쪽에 가스룸에 있는 거는 이제는 흔적 었고?
A : 잇우다. 그대로. 그건 그대로 잇인디 그 저번에도 완 나가 어디서 와서니까 거기 간 사진
찍영 갑디다마는 그 속에 보니까 막 귀가시냥도 났고, 또 저
B : 막 잡풀덜 났주게
A : 쓰레기도 그 안에 막 내와난 있고
Q : 쓰지 안허니까이
A : 예. 거난
Q : 그 불턱 만들 때는 남자들이 돌 다와져수과?
A : 아니. 우리 그 모연덜 그거 이제 돌덜 우리가 날라오멍 헐 때는 그 해녀 남편덜도 간 많
이 도와줘수다게, 그거는. 그 불턱 갈 때는. 경헌디 나가 결혼허기 전에니까예. 우리는 어
머니네랑 강 그 돌만 다 모여갓우다. 그디. 거난 그 당시가 한 육십삼년도(63년도)쯤 되
신가, 년도로 생각하면. 하영든 육십삼년도(63년도)쯤 되실거우다
Q : 그러면 그 때는 물 소중이를 입으셨잖아
A : 예. 소중이 입을 때마씩
Q : 소중이 चु고, 그 때
B : 게난 불턱 만들언 불 살란 추와난 것도 잇인디
Q : 불턱에서 거기서 뭐, 무시거과, 그 저 조, 조냥?
A : 예. 조짚
Q : 거, 조짚이렌 (18:18)해?
B : 조짚, 조짚
A : 조 코고리 톨아난 것고라 조짚, 보릿냥
Q : 것도 잘 타잡아예.
A : 그거허고 보통 타는 거는 콩, 콩고지양
Q : 콩고지
A : 콩고지 불 잘 쏘아정 또 콩고지 많이 정 다니고
Q : 거 후딱 불어불면 어떻 해?
A : 경허난 호꼼씩 호꼼씩 지듭니께
Q : 호꼼씩 지들리멍, 불 추와가멍

A : 바탕에서 또 올라오는 나무덜도 좇어당덜

Q : 그 무신 불턱허면 어떻든 지금처럼 여기 계장님허고 뭐 영 좋은데 앉고, 영 밑으로 에 와싸지는 그런 게 순서같은 거 잇을 철이우파?

A : 별헌 순서는 엇인디예. 거기서 상군, 하군이 잇입니다. 나이 잇이분 상군덜 잇이문 그분덜 안는 자리는 호꿈 피허영덜 앓아, 앓을 수가 잇어예. 그런 건 잇인디 느 자리, 나 자린 엇입니다.

Q : 상군덜 앓으는 자리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네이.

A : 예. 경허문 우리가 만약에 먼저 나고 뭐해도 이제 그분 앓는 쪽으로는 조금 피허명 앓는 디, 말제 나는 사름고라덜도 오문 “요레 왕 이 모더레덜 앓으라” 허명덜 그 아맹해도예 조금 뭐 사름. 경헌 상군 나이 드신 분 들은 호꿈 그 자리를 택해줍나수다.

Q : 상군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상군이라고 해질건고예?. 여러가지 면에서 이제 상군이 있는데. 물건 잘 잡고, 잘 잡아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, 상군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분들을 상군이라고

A : 조금 짙은더레도 가고, 좀 오래 사는 사람도

Q : 오래

A : 예. 물에서 조금 늦게 나오는 사람들에

Q : 그런 사람들 물건도 많이 잡을 거고

A : 예. 경허영 상군이엔 허영 조금 또 물건도 많이 허고, 조금 오래 삽니다게. 물건도 많이 허고, 짙은더레 나가고, 그런 분 보고 상군

Q : 그 상군이 배우는 돌팔이 해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주는게 잇인가마썸? 경허니까 막 상군을 우대하는 거 아닌가. 약간 뭐 어떤

A : 도움 준다라는 건 느껴보지 못해수다마는예

Q : 뭘 잡아준다라거나 아니면 물질허는 걸 ㄱ르쳐 준다라거나

B : 그런 건 엇일, 없는 걸로 뵙수다. 없고예. 그런 걸 못 느껴신디, 이 언니 어머니가 물질 헐 때 나도 물질을 해수다게. 하면 “아이고, 인영아 요레 오라. 요렌 호꿈 앓으고, 요레 오라. 요렌 호꿈 짙으곡, 요렌 전복도 하영 붙으는 디여.”

A : 해섬도 잘 나는 디

B : 그때부터 나가 물질을 시작허난 물질을 잘해줍니다게. 경허난 물질을 잘허는 줄 아니까 짙은 디 가곡 허니까 “아이고, 어려도 아기상군, 아기상군” 허듯이 경헌 뭐허난, 아물든 짙은 바탕 드는 사름이 상군이라양. 거나 아기상군 아기상군 허듯이 경 하영 해가난 요레 오라 저레 오라 허연 그런 지시는 허여마썸. 요렌 짙으곡, 요렌 얇으곡, 요렌 전복이 많 이 잇곡, 요렌 경 엇곡 헨다허영 그런 배런 해여줍디다.

Q : ㄱ르쳐 주는 거지

B : 예. 그런 뭐가 잇어예. 요즘은 그런 거 엇우다게

Q : 예. 요즘은 뭐 해도예. 그게 중요한 거주게예. 해녀 공동체에서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거

B : 예. 그런 배려는 좀 잇입니다. 예 예. 좀 생각해 주곡예

Q : 아맹해도 맨날 다니고 하다보면 언니가 계장님 이어 허는 걸

B : 예. 틀리주게마썸. 우린, 난예, 지금 생각해도 무대뽀 물질이우다게. 아까 얘기 해주마는 예. 그자 짙은 디 그냥 뭐 엇이 들어지니까 무대뽀 물질인디

Q : 워낙 기술이 있어버리니까 그

B : 이런 영순이 계장님 같은 분은예. 아 여기 가면 뭐가 있고, 저기 가면 뭐가 있고, 육상에

서도 저기는 여가 있고, 여기는 모살 바당이고, 여기는 굴렁이고, 그런 걸 다 느끼는디, 저 산 보명 그런 걸 뭉헌덴 험디다게. 그런 옛 어른덜 보면, 경허는디 난 그런 거 옛이 무대뽀로 그냥 물에 강 내려강 좇아 가곡, 침 깊은 거는 위에서 안보이고, 아무리 물 고 와도예, 깊은 바당에 그게 탁 느껴져예. 밑엘 안 보영 중간쯤더레 가야 물건이 보이곡, 영 몇 발 바당 내려강 뗏발 가민 ‘아 깊이 와졌구나’ 허듯이 그런 느낌으로 그냥 다니곡, 짐작 식으로 ‘아 요쯤엔 여란게 혼번 가보자’ 허든 헛치기도 가지곡, 또 내려가당 숨비난 물 아래 영 찾아다니당 보민 저만쯤 잇이든 ‘아, 저만이가 여로구나’ 허영 올라 오고 또 테역밀영 그레 가지곡 허는디

Q : 거난 혼련 허는 거보다 타고나는 게 더 큼직허다양

A : 게메

B : 나 생각에 그런 생각이우다마는 이런 어른덜은 저런 그런 능력이주게마썸. 바다의 경력으로

Q : 아, 경력으로

B : 응, 뭐가 있고. 옛날 경해나수다. 금지기간 때 전복이 많이 날 때난 양. 금지기간 때 전복 못 허니까 강 보니까 전복이 막 큰거 붙은 거 아니양. 그분 돌아가셨주마는양, 그분이 영행 베려보난 어는 밧디 보리낭 놀이 놀던 잇이난 ‘아, 저 보리낭 놀 기준허영 요디 전복 잇이난 해 걸르든 저기 와야 되겠다’ 경 생각헸덴 허는디, 난 그런 것이 옛이 무대뽀로양 가지는 거라예. 게난 육상도 보곡, 이 물 밑에도 보곡 허영 그 개남²⁰⁾을 헸덴 허는디, 난 그런 개남 옛이 다녀집니다게. 게난 보면 대부분 보면 아 요디 가면 여가 있고, 요디 가면 뭐가 있다는 거, 이 어른넌 누워도 딱 알주게마썸. 딱 어디 가면 뭐가 있고, 어디 가면 뭐

Q : 누워도 눈에 선하지 안허여예

B : 예. 눈에 선허고, 우린 그자 해난디 ‘아, 그디 가면 그렇구나, 저디 가면 그렇구나’ 경행 다녀집니다게

A : 게난예. 옛날에는양, 그 시절에는 그 조갱기 빈 꺾데기 암전복 꺾데기렌 행 좀 납작헌 거예. 그거를 이 항상 허리에 찬 들어수다. 그 고무옷 안 입을 때도 이 저 소중기 고무, 소중기 줄 이렇게 묶으지 안헸니까? 그 묶은 뒤에다가

Q : 본 조갱이

A : 예, 본조갱이를, 납작허영 영 잘 갈라지는 거를 창 다녀

B : 올라오명 데껴도²¹⁾ 짝 갈라지는 거

A : 경허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물에들 때 그 짙은 디 다닐 때에는 물창에 강 이렇게 기어다니질 안헸니다. 지금은 물창에 강 다 조사허명 다니주마는 그 당시엔 물 중간으로 휘어가예. 이 지붕 높이만이 떠 등서. 지붕 높이만이 떠 등서 그대로 휘어다닙니다. 휘어다니명 전복 보이는 디마다 그 조갱기를 놓면 돌이서 짝공허영 그 테왁망사리에 심읍니다게. 테왁을 돌이서 짝공허영 심당 이제 중간으로 휘어다니당 전복 보이든 그냥 그 저 조갱기를 허리에 거를 톱 놓면 가이가 갈라정 그레 떨어집니다. 거든 떨어지든 우리는 올라오명나 저 조갱기가 전복 신디서 북쪽으로 감다, 남쪽으로 감다 허는 걸 볼주게. 중간에서 떨어쳐버리니까, 거든 이제 위에서 보는 사름도 테왁 심은 사름은 또 내려강 바로 떼어다주곡 그런 식이 많아수다게. 경행 또 못 찾앙 못 떼어 오면 물이 가부니까 그 조갱기가

20) 개남 : 가늌

21) 데껴도 : 던져도 => 데끼다 : 손에 잡을 수 있는 물건을 던지다

흘러가볼 수가 있어양. 물에서 영 뜨멍, 경허문 이젠 우린 올라오멍 그 전복 신디서 조갱기가 어느쪽으로 본 조갱기가 떨어진다는 거를 뵈 강 허여오고, 또 그 본조갱기 차는 이 유도 물이 조금, 물 우이서 물창이 잘 안보이니까, 물이 짙영 안보이른 조갱기가 조금 우에서도 반잘반잘 보일 수가 있어예. 경행 그걸 개념으로 들어가꼭 허영 그 허리엘 꼭 조갱기를 찬 들어나수다게.

Q : 숨비소리는 물이 깊은데서 작업해서 올라 왔을 때 더 나는 거파, 두분 다 숨비소리 할 수 잇우과?

A : 예. 물속에 짙은디 건, 얇은디 건 물 소게 다니당 보면

B : 숨 차면

A : 숨이 좀 바쁘지 안험니까게. 숨이 좀 탁 바뻡 이제 숨이 다 먹영 올라오면 “호이”

B : 저절로 나옵니다게

A : 호이 허면 그 숨이 다 나오, 지대로 나옵니다게. 안허젠 해도 나올 수밖에 잇어마썸

B : 숨 창 올라오면 딱 숨비소리가 나와

A : 경헌디 짙은 디 가면 야이가 한 이분(2분)은 들어점실거여 허는디, 야이는 삼분(3분) 더 들어져실 거우다. 그 당시에 나가, 우리가 굿디서 나가 전복을 떼멍 혈 때 우에서 흥번 시간 본 사람이 잇어양. 이분삼십초(2분30초) 살았젠 험디다게. 경헌디 야이는데, 물속에서 한 삼분(3분) 더 살아실 거우다.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물에 들영 같이 해영 봐도, 중간 쯤에 봐도 테왁 여기서 허문, 나가 여기 잇이른 물에 들영 저까장 강 거꾸로 돌앙 이 테왁신디 왕 올라와예, 야이는 한바퀴 돌앙 자기 들어간 쪽에서 올라오니까 테왁광 멀리 안 떨어정 올라온디, 우린 죽죽 가당 숨 가쁘른 그냥 올라올 수도 있고, 또 호꿈 거꾸로 돌앙 올라왕 돌아올 수도 있고, 지금은 경허는디 야인 흥바퀴 다 돌앙 올라와뵈니다. 나가 저기 뭐 보영 저걸 강 허영오주게 허영 허문 야이가 이리 들어가문 저레 갈건가 말건가 영 올라오는 거 뵈 또 강 그걸 안 행와사 올라오주 흥바퀴 돌앙 올라와뵈니다. 야인 흥바퀴 돌아

Q : 대상군인게, 대상군

A : 예 경허니까 숨이 험 나가 볼 때는 흥 삼분(3분) 넘어 춤안 물속에서 사는게 아닌가, 야이, 경 생각이 듭니다게.

Q : 바당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잇우과. 뭐 갯뎡이라든지, 청소라든지 그런 모래바다

B : 아, 저 톳 해나른 그 끝에, 한 유월달(6월달)에 갯뎡이 해져수과?

A : 아니, 칠월(7월)

B : 칠월, 칠월달에 갯뎡이 사업을 해신디, 이젠 톳발도양 막 썩어붙고, 갯뎡이 사업 허기가 더 위험허여전예. 한 이년(2년)은 갯뎡이 사업 안해수다.

Q : 안 하시고?

B : 예. 그전엔 허고. 한 이십년(20년) 전에는 뭐, 저기 비료도 다 뿌리멍 다 해나수다마는예. 이젠 그런 현상도 잇고, 또 바다 관리는 그자 조 짜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멍 그자 너물(4물) 날부터 흥 열물까지 바다관리 험니다게.

Q : 그니까 여기도 작업은 조금에서 여섯물(6물)?

B : 아, 조금에서 너물(4물)까지 허단, 물건 잇고 뭐해가난 서물까지 허자,

Q : 아, 조금에서 서물(3물)?

B : 예. 서물까지

A : 열흥물(11물)부터 서물(3물)

B : 열훈물(11물)부터 서물(3물)까지
A : 조금부터 안 하고
Q : 아, 열훈물(11물)부터 서물(3물)까지
A : 예. 열훈물(11물), 열두물(12물), 열서물(13물),까지이 조금 아니파. 한조금.
Q : 그 요즘 회의 결정하는 거 워 하나 여쭙볼께예. 그 해녀분들이 여럿이 있을 때, 해녀분들은 만장일치를 헌덴 허는디 그게 맞은 말이우파?
A : 예 예. 다 좋다 허는 말이 많으면은 만장일치로 들어가예. 다 좋은 걸로 가면은 만장일치고, 또 거기서 이제 몇 사람이 “이건 아니다” 하면은 “건 그런 식이 아니다” 하면은 그건 만장일치가 안 된 거우다. 예, 그냥 오늘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다는 것만 그 계장이나 간사나 그런 식으로 썩 올라가는 거 다후다.
Q : 회의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잇우광? 물질을 허느냐, 안허느냐
A : 아니, 그거를 떠나가지고 어디서 이제 무슨 공문이 와가지고 바다에 이제 뭍을 어떻게
Q : 종패 같은 거
A : 그런 것도 있고, 또 어디서 또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무슨 사업을 허게 될 때 회의가 있고, 또 이제 우리 엘엔지(LNG)가스 애월항 들어왕 지금 고내 바다 침범하듯이예. 그런 식에 대해가지고 또 회의를 여러번 가질 수 잇고예. 또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가지고도 많이 회의를 가집니다게. 건디 그것을 총회의를 안가지고 총대라고 해가지고 총대를 뽑아가지고
Q : 총대회의서이?
A : 예 예. 총대엔 허다가 지금 대의원으로, 대의원이엔 곁아봅니다. 마을 대의원예. 어촌계 대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한 뭉 일곱,여덟명(7,8명) 뽑앙 그 상태에서면 책임자 낳 한 열한명(11명), 열두명(12명) 그런식으로 그 회의에서 모든 걸 결정허영 끝나는 수도 잇입니다게.
Q : 요즘 수입은 얼마정도 됴수과? 마지막으로
A : 야이 잘 알주기마는 요즘 수입, 요즘에 잘
Q : 요즘 아니고, 일년(1년) 수입, 만약에 언니 정도는 얼마정도 됴수과?
A : 정확하겐 모르쿠다마는 한 오백(5백)? 사백(4백), 오백(5백)
Q : 사백(4백), 오백(5백)
A : 예. 일년 수입이 거밖에 안돼예.
Q : 전에 많이 있을 땐 얼마정도
A : 많이 잇일 땐 많이 해십주게마썬게. 야넨 많이 잇일 때 일년(1년) 수입허면 흥 삼천(3천), 이천오백(2천5백) 경 넘어갈 거우다. 경허주만은
B : 흥 물찌 메칠만 해도 돈 백(100) 이백(200)사 햄수게게.
A : 경허난 일년(1년) 수입이 이천오백(2천5백)에서 삼천(3천) 그정도 일년 수입이 갈 걸로 뵤수다게. 우리가 해보면 나가 흥 돈 천만원(1천만원) 조금 올라가니까, 한 삼배(3배)는 헉니께.
B : 해삼 날 땐 한물찌 헉 때 삼사일(3,4일)만 해도 흥 백만원(1백만원), 백오십만원(1백5십만원), 또 해삼 많이 허영 뭍 헉 땐 한 이백 경 되고, 경 안 헉 땐 몇십만원도 되곡게.
A : 계난, 물질이렌 헉 계예. 돈 버는게 일정허질 안해부니까
B : 노름이나 마찬가지로이우다게
A : 일정허질 안허니까

B : 노름이나 마찬가지로. 그날 운이 좋으면, 그 물찌 운이 좋으면, 많이 허면 첨 훈 백오십(1백 5십) 이백(2백)도 되곡, 경 안허면 몇십만원도 되고

Q : 그 바다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수과?

A : 우리는 난 이제까지 생각허긴 바다는 우리를, 나는 바다에서 사니까

B : 살리는 황금바다

A : 바다는 우리를 살리는, 생계를 유지해주는 모든 그거에 대한 거다 생각해집니다게.나도 바다에서 모든 걸 허명 애들 삼남매(3남매) 다 고등학교까지 시키고 대학교는 안가켄 지 네가 안가켄 허연 허고, 뭐 우리 아들은, 큰 아들은 야간, 말젠 대학도 지만 지대로 뎅기 켄 허연 뎅기고, 어머니 말 안들어진게 후회스럽덴 한 다니고 험디다마는

B : 아이, 사업허연 잘 되연, 잘 살았수다게

A : 아이덜 그냥, 물질허명 살고, 물질허명 받도 사지고 예

Q : 그러면은 몇세까지 작업허실 거?

A : 물질은마썸? 현재론 모르쿠다. 현재는 이 엉치가 많이 아프니까

B : 건강만 허면은 허허허 계속 해야주게

A : 나 냥으로²²⁾ 한 이,삼년(2,3년) 해질건가 영 행 봐도 이,삼년(2,3년) 넘어가곡 경 허명 이 제 허였수다

B : 지난해도 보면 “나 이,삼년(2,3년) 못한다” 경해도 마찬가지로. “아이, 건강한 한은 팔십오세 (85세)까진 허여집니다.” 경 곶았수다게. 경허난

Q : 언니 생각, 그지에

B : 아니, 경해도 건강허든 허여집니다 허는디 물에는예 건강해야 허는 거니까. 건강만 허면 한 팔십세(80세)까진 허여질 거우다게

Q : 맞아

A : 예. 나가 물에 오늘, 내일 설러²³⁾질 거다 생각허는 건, 이 거 한 삼년(3년)전에예 삼년(3년)전에 이천십사년도(2014년도) 말인가 천십오년도(2015년도)에 심근경색이 옹디다게. 심근경색 와가지고 갑자기, 야인 그날 저녁에 완 나보고 병원에 갈 때 엑스레이(X-Ray) 찍어볼 거 아니우파 허건데 “아니, 막 요디가 아판 못 살켜”, 요 옴송이 밑에가 막 아팠 디다게. 아판 허는디 밤에 그냥 견디질 못허연 일일구(119) 불런 병원가게 되연예. 병원 가게 되연 산소호흡기 대명 가수다마는 가난 심근경색이렌 허연 수술로 허연에 그거를 마칩디다마는 그게 있어버리니까 이거 물에 얼마 못 들거 아닌가, 뭐 일년이나 들든 말건 가, 내년이든 내년 들든 못 들건가 해도 내년도 들어지고 영 들어점수다게. 현재는

B : 팔십세(80세)까진 들어집니다. 팔십세(80세)까진

22) 나 냥으로 : 제 스스로. 나 자신의 힘으로

23) 설러 : 그만 뒤 => 서르다 : 하던 일을 그만 두다. 벌어 놓은 것을 치우다.